

광주 미디어아트 현재를 보다

‘알지비st’ 창립전, 6월 9일까지 국윤미술관
김명우·나명규·문창환·정운학 등 10명 참여

광주시가 지난달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재선정됐다. 시는 지난 2014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됐었다. 현재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아트플랫폼에 이어 오는 2021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AMT센터’가 완공되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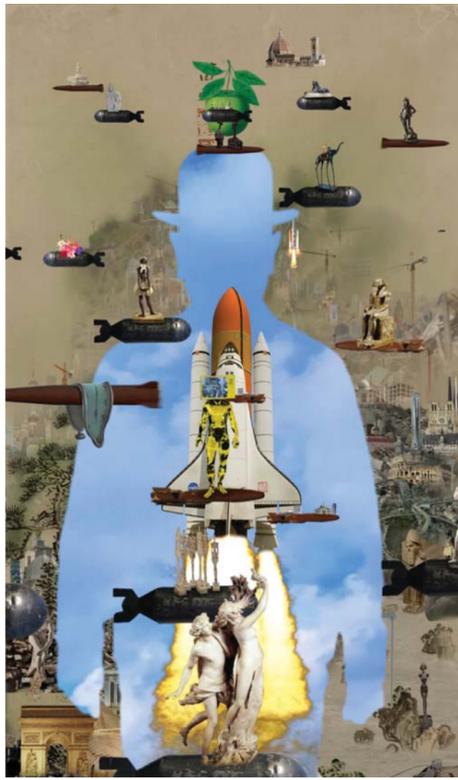
광주가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이다.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많은 이들이 함께 향유할 때 미디어 아트는 일상 속에 함께한다. 지역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의기투합해 아트그룹을 결성했다.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안착에 작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룹 이름은 빛의 삼원색(빨강, 녹색, 파랑)에서 따와 ‘알지비(RGB)st’로 정했다. 김명우, 나명규, 문창환, 박상화, 유지원, 이이남, 이정기, 임용현, 정선휘, 정운학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앞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무등산 자락 국윤미술관(관장 운영월)의 초대로 열리고 있는 이번 창립전(6월9일까지)에서는 광주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다.

이이남 작가의 ‘만화-병풍II-상상된 경계들’은 경계 정선과 강세화의 고전회화를 바탕으로 국가, 이민자, 인권, 예술 등 다양한 현대 사회 이슈를 산수화 속에 녹여 냈다. 마그리트의 작품을 비롯해 반가사유상, 미켈란젤로 피에타 등 다양한 예술 작품과 이를 실어 나르는 폭탄, 끊임없는 개발을 상징하는 포크레인 등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가 공존하는 풍경을 만화적으로 표현했다.

김명우 작가의 ‘Dig’은 사회적 공간에서 흐르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상 속 발굴 현장처럼 보이는 장소에서 두 남자가 세심히 발견해내는 것들은 플로피 디스크, 전자사전, 비디오 테이프 등 우리에게 한 때 익숙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여기에 최신 애플 스마트폰을 마치 유물처럼 발굴하는 장면도 담아 매체 발달의 가속화가 가져오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했다.

박상화 작가의 ‘무등판타지아-무등도원경유람’은 무등산의 일상적 자연 풍경이 초현실적으로 펼쳐진다. 키치적 느낌의 조화(造花)로 장식된 프레임 속 영상은 무등산의 사계절 풍광 속



이이남 작 '만화-병풍II-상상된 경계들'

을 거니는 느낌을 준다.

‘유물’을 모티브로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이정기 작가의 임신한 여성의 석고 조각상 위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영상을 ‘단장(斷腸)의 애(愛)’를 선보이며 새벽녘 산사 풍경이 인상적인 ‘인동을 탐(探)하다’를 선보이고 있다. 임용현 작가의 ‘Who is you’는 관람객들의 사진을 찍어 화면에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작업으로 흥미롭다. 문의 062-232-73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상화 작 '무등판타지아-무등도원경유람'

베니스비엔날레 현장서 ‘광주비엔날레’ 홍보

김선정 대표·예술감독 등 참여
해외 미술계 인사 대거 참가

(재)광주비엔날레가 ‘현대미술의 축제’ 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8일(현지시간) 베니스에서 국내외 유명 미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광주비엔날레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김선정 대표이사와 2020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인 데프네 아야스, 나타샤 진발라를 비롯해 역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지낸 마리아 린드, 마미 카타오카가 참석했다. 또한 유진탄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장, 스테파니 로젠탈 마틴그로피우스하우스 미술관장,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 국내외 유명 미술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재)광주비엔날레는 내년에 개최되는 2020 광주비엔날레 행사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내년 전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을 연대의 관점에서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8일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해외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서 바라보고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사회 저항이 생긴 사례를 역사적으로 소개하며 5·18의 의미를 예술로 승화·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비엔날레 본연의 혁신성, 진보적 광주정신, 현대미술의 다원성을 결합한 전시 구현을 목표로 시각 문화와 인문사회 분야를 연계한 문화 실천의 장 역할을 강화하기로 해 국제 미술계의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으로 선정

된 김선정 대표는 심사활동을 벌이며 광주비엔날레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한국 미술을 해외에 알리는 다양한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오는 11월 24일까지 열리는 2019년도 제58회 베니스비엔날레는 흥미로운 시대를 살아가기(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를 주제로 열리며 총감독은 영국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디렉터 랄프 루고프가 맡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바로크시대 고악기 연주를 직접 듣는다

13·20·27일 ‘원더풀 바로크 20’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바로크시대 고악기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연주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월요콘서트 ‘원더풀 바로크 20’은 13일, 20일, 27일(오후 7시30분)3차례에 걸쳐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포르테 피아노 등 바로크 시대에 쓰였던 고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음악회를 마련한다.

13일엔 ‘고음악을 향한 여행’을 주제로 피아니스트 최지은이 바흐의 ‘환상곡’, 모

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쇼팽의 ‘야상곡 2번 Op.15’, 슈만의 ‘야상곡 2번 Op.6’,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교별’을 에라르 포르테 피아노로 연주한다.

오는 20일엔 ‘고음악과 성악’을 주제로 피아니스트 최현영과 테너 박승희가 무대를 꾸미고 27일엔 ‘고음악, 트리오 판타지’를 주제로 피아니스트 이은지,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연·비올리스트 이정수가 포르테 피아노, 바로크 바이올린, 바로크 비



최지은

서상중

올라 연주를 선보인다. 각 공연은 한국 피아노조율사협회 회장을 지낸 서상중이 해설을 맡아 고음악의 역사와 악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전석 무료. 선착순 100명. 문의 062-670-7942.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현대인의 고독, 그리고 상실감

한동훈 ‘꿈꾸는 피노키오’ 전, 15일까지 금호갤러리

서양화가 한동훈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공모에 선정돼 마련됐다.

‘꿈꾸는 피노키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한 작가는 동화 속에 나오는 ‘피노키오’를 소재로 현대인의 고독과 대중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상실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작가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목각인형 피노키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타인의 조종에 의해 움직인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작가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피노키오에 투영시키며 삶의 여유를 찾고 인간적인 삶에 대해 고민해 보길 권한다.



‘함께하다’

한 작가는 조선대 서양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문의 062-062-360-8430.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www.shinyangparkhotel.com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 2/221-4101,3